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관련 8.6 보도자료 스크랩

2024.8.7.(수)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인터넷	대경일보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항 한동대에서 열린다	
2	인터넷	대구신문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3	인터넷	인디포커스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4	인터넷	문경일보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5	인터넷	경북브리핑뉴스	포항 한동대에서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6	인터넷	경상매일신문	포항 한동대서 동북아시아 리더들 한자리에	
7	인터넷	한민일보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8	인터넷	김천일보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9	인터넷	세계타임즈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10	블로그	주한러시아 대사관 블로그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항 한동대에 서 열린다

✎ 김대호 기자    ④ 승인 2024.08.06 14:59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5~11일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5~11일 한동대에서 7개국 청년 40명과 함께 청년리더스포럼을 열고 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공

경상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8월 6일 한동대에서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환영사,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

비웠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 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상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 및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출한 지원서 등 자료를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이다.



김대호 기자 homigod@naver.com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김상만 | 승인 2024.08.06 16:31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경북 포항에서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오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연다. 포럼 참가자들이 개회식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오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연다고 6일 밝혔다.

NEAR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다.

이번 포럼에는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과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등 60여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해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됐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외 부대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시간도 마련됐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경북 포항에서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기사입력시간 : 2024/08/06 [15:44:00]

임중백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단체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8월 6일 한동대에서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환영사,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

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됐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행사로 참여 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상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 및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출한 지원서 등 자료를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이다.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보도자료

17시간 전

<https://blog.naver.com/hsig7/223538672072>

-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경북 포항에서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경상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대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8월 6일 한동대에서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환영사,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되었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상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 및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출한 지원서 등 자료를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이다.

# 포항 한동대에서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 황태진 기자    Ⓞ 승인 2024.08.06 15:33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경북 포항에서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2024 청년리더스 포럼 개회식 단체 / 경북도(NEAR사무국) 제공

경북 포항한동대학교에서 2024 NEAR청년리더스 포럼이 개최됐다.

경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5~11일까지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6일 한동대에서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 환영사,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해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됐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모습 / 경북도(NEAR사무국) 제공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 주제 특강을 통해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됐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 및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출한 지원서 등 자료를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됐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이다.



**황태진 기자** tjhwang0978@naver.com

# 포항 한동대서 동북아시아 리더들 한자리에

김용목 기자 kimym3398@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4.08.06 20:13

11일까지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경상매일신문=김용목기자]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 개회한다.

8월 6일 한동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2 영상,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해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됐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환경보호도 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와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종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한편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

# 한민일보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경북 포항에서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등록 2024.08.06 15:50:04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8월 6일 한동대에서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환영사,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

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됐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상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 및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출한 지원서 등 자료를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이다.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 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 편집부    ㉠ 승인 2024.08.06 23:35

###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경북 포항에서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경상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8월 6일 한동대에서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환영사, 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 NEAR 사무총장은 개최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되었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상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 및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출한 지원서 등 자료를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 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이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mailto:gcilbonews@daum.net)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포항 한동대에서 개최

한윤석 기자 ✉ / 기사작성 : 2024-08-06 15:09:37

**- 동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 경북 포항에서 상호이해와 교류 한마당 -**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는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과 한동대와 공동으로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포항 한동대에서 동북아시아 7개국 청년 40명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상호이해와 교류강화, 청년들이 직면한 고민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2024 NEAR 청년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



8월 6일 한동대에서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는 NEAR 사무국과 한동대 관계자, 참여 청년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환영사, 진

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 직터 우너르자야 주부산몽골 총영사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임 NEAR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및 동아시아 정세가 협력과 경쟁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 동아시아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우정을 쌓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 공동발전과 지역평화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며 청년리더스포럼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NEAR 회원정부 7개국(중국,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0명의 국내 거주 청년 유학생(석·박사)들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청년들의 고민과 해결방안 공유’ 등 청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를 소주제로 하여 연사 초청 강연, 참가 청년 그룹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로 준비되었다.

정해관 대구국제관계대사가 ‘동북아의 번영과 청년들의 역할’을, 신혜인 한동대 교수가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참가 청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동북아 정세 및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고민에 대한 참가 청년들 간의 상호토론 이외에 부대행사로 참여국별 문화 소개, 장기자랑을 포함한 ‘문화교류의 밤’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포항지역 산업시찰과 경주문화투어, 한국문화 체험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국문화와 경상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포항 칠포리 해안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도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 참가 청년선발은 국내 각 대학에 유학 중인 NEAR 회원정부 및 준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75명의 청년 유학생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제출한 지원서 등 자료를 토대로 7개국 40명의 청년이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년리더스포럼」은 매년 NEAR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NEAR 회원정부 거주 청년들이 지역의 책임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국제교류 행사이다.

한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 등 6개국 81개 광역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력기구이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

8월 6일에 포항에서 '하나되는 우리, 번영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2024 NEAR 청년리더십포럼'의 개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NEAR 회원정부 6개국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몽골, 베트남) 청년 학생(석·박사)들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옥사나 두드니크 주부산러시아총영사는 영상축사를 보내며 NEAR 동북아에서 다방적 협력과 청소년 교류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포럼의 참석자들에게 성공적이고 유익한 협력을 기원하였습니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동북아에서 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에 창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현재에 러시아의 자치단체 17개 등 6개국의 자치단체 81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